

한솔건설의 자랑! 『감성안전』

1. 감성안전이란? _ 감성안전이란, 적은 투자로 근로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율안전관리 기법이다. 수직하달식의 안전지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딱딱한 업무 등은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존중의 기본이념과는 거리가 먼 반면, 감성안전은 존중과 칭찬, 경청, 배려 등 감성을 자극하여 이를 안전과 품질 향상으로 이끄는 자율적인 방법으로 신바람나는 작업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

■ 감성에너지가 높은 조직의 5가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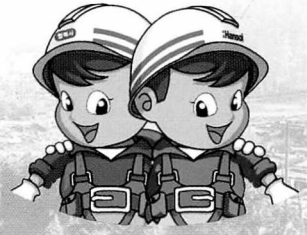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신뢰 / 일과 회사에 대한 자부심 / “우리는 하나”라는 동료애 / 공정한 대우 / 감성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관리자(애정과 관심)

2. 감성안전 시행 _ 감성안전은 근로자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감성적인 안전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시스템화 한 것이 한솔건설의 감성안전이다.

감성안전은 총 3 STEP으로 이루어지는데 공사기간에 따라 각 STEP 기간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STEP 1은 “정을 만들기”로, 나부터 기본지키기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항들로 한솔건설에서는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안전관리 기반 구축을 시행하고 있다.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는 현장 통합 시스템 구축, 근로자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과 전산관리가 완성되고, 핵심관리, 기반관리, 3대 취약 근로자(외국인, 용역, 신규)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완성된다. STEP 2는 “WIN-WIN”으로 시스템 안전관리체계 정착으로 자율안전관리를 실현하는데 있다. 즉, STEP 1에서 구축된 사항들을 정착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STEP 3은 “선진안전관리 정착화”로 감성안전 습관화와 5S 습관화를 통해 선진안전으로 가는 것으로 감성안전의 완성단계이다.

3. 감성안전을 완성하기 위한 사항들 _ 한솔건설에서는 근로자의 감성 마인드를 향상시켜 감성안전을 완성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현장 여건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다음은 한솔건설 비잔티움한솔주상복합현장에서

상생(Win-Win)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솔건설 비잔티움현장에서 새로운 안전관리기법인 “감성안전”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차곡 차곡 영글어 가고 있다. 지난 2개 현장에서부터 개발되어 보완한지 4년이 지난 지금 감성안전은 산업안전보건장조주간에 실시된 건설현장안전관리우수 사례발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많은 이의 관심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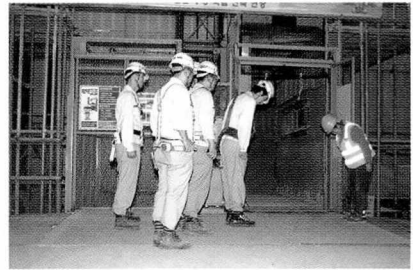
시행하고 있는 주요 사례이다.

가. 감성마인드


- (1) 불우 이웃돕기로 감성에너지 높이기
- (2)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캠페인 전개 : 분기 1회 합심(合心)의 장인 가족모임 개최, 가정통신문 전달,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 지정 등이 있다.
- (3) 매일 업무시작전 10분 실시하는 예절교육
- (4) 팀장 100% 사외 안전교육 이수
- (5) 긍정적인 사고 캠페인으로 “나는 내가 참 좋다” 등이 있다.

나. 각 단계별 주요 활동 사례

- (1) STEP 1 : 기분 좋게 아침을 시작하는 감성안전조회, 현장소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근로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좋은 아침,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조업 작업환경과 같은 최상의 환경 제공, 근로자 가족 사진 컨테스트와 내 공정사진 부착 등으로 “배풀기”, “정 만들기” 등을 실천한다.
- (2) STEP 2 : HI FIVE-ZERO 운동 실천, 사전 시공안전계획서 운영, 실시간 동영상을 통한 안전관리 및 Web Site 구축을 통한 자료 공유, 시공과 안전의 일체화 작업 등이 있다.
- (3) STEP 3 : 지난 두 단계에서 실시한 사항들을 표준화하고 사후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생활화를 추진한다.



적은 근로자의 안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안전이고 그 안에 감성안전이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감성안전은 근로자의 안전을 이끄는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라는 것이다. 감성과 이성은 상반되는 논리이나 분명 현 사회에서는 공존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질은 높아진다. 이러한 사항을 추구하는 것이 한솔건설의 감성안전이다.

기본만 지키면 편안하고 일할 맛 나는 현장, 안전감시단이 없어도 사고한 건 발생하지 않는 현장, 서로 인사하며 마음을 여는 현장 한솔건설 비잔티움한솔주상복합현장에는 감성안전이 있었다. 

〈최종덕 기자〉

4. 맺음말 요즘 한솔건설 비잔티움한솔주상 복합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구가 있다. “감성지수(EQ) 200으로 올리기 캠페인”이다. 감정지수가 200이 되어야 의식수준과 감성, 행동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연구 자료를 근거하여 감성안전의 정량적 목표를 감성지수 200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타 건설현장에서도 한솔건설의 감성안전을 벤치마킹하면서 너무 감성에만 치우치다보면 본질의 안전이 흐트러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차승규 현장소장은 궁극적인 목